

가족보험으로서의 여성 노동공급*

안 태 현**

I.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로 안정적 고용관계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고용안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에 따르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실업을 경험하는 확률이 외환위기 전인 1996년 4.8%에서 2006년 9.1%로 증가하였으며(이병희, 2007),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는 일자리를 다시 이탈할 확률이 높아 고용불안을 지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윤윤규·박성재, 2008).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확대 및 고용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정책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설계와 더불어 부정적 경제충격에 있어서 가구내 보험의 공급자가 되는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회정책수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상호간 보험공급자 역할을 하여 소득충격으로부터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이루어 주는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더 나아가 위험공유를 위한 수단으로 가족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 또한 남편의 실업상태에 대해 가구의 부가노동자(added worker)로서 배우자의 노동공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대공황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가족의 보험기능에 관한 연구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수준의 총량수준 자료를 가지고 남성의 실업률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았으나(Mincer, 1968; Bowen and Finegan, 1965; Cain, 1966), 근래에는 미시수준

* 본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안태현(2010), 『노동이동, 고용안정과 가족구조』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응용경제』 2009년 12월호 게재)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tahn@kli.re.kr).

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족내 남편의 실업상태와 여성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는 연구로 발전하여 왔다(Malony, 1991; Heckman and Macurdy, 1980, 1982; Lundberg, 1985; Cullen and Gruber, 2000; Stephens, 2002).

한편 국내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의 보험기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하다.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십여 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출산 및 육아, 교육수준, 자녀교육비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왔다(김현숙성명재, 2008; 조운영, 2006; 최형재, 2008; 황수경, 2002). 예외적으로, 최근 연구 중 박진희(2009)는 남편의 미취업상태가 여성의 취업확률을 감소시킴을 발견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배우자의 취업에도 같은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미취업상태가 남편의 실직 등 가구의 소득충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동일시점의 부부간 취업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남편의 실직 전후 여성노동공급의 반응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고는 십년간 축적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노동공급이 남편 실직의 충격 전후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여성노동공급의 변화가 가구보험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남편의 실직 후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편의 근로소득 감소를 얼마나 대체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노동공급 패턴을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숙련수준에 따라 보험제공자로서의 기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II. 표본의 기초통계

분석을 위한 표본은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에서 추출하였다. 노동패널은 1998년 한국의 도시가구를 대표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까지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고의 분석에서는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에 포함된 3,980쌍의 부부로 구성된 가구는 평균적으로 6.3년 동안 조사에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실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노동패널에서 묻는 퇴직 사유에 관한 질문을 이용한다.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 중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정리해고’,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실직에 포함시키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파산, 도산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를 실직에 포함시켰다.

<표 1> 표본의 기초통계

	실직 미경험(N=22,667)		실직 경험(N=2,324)	
	Mean	Std. Dev.	Mean	Std. Dev.
연령				
남편	44.47	10.09	44.38	9.48
여성	41.09	9.33	41.11	8.99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연수	12.51	3.38	12.04	2.96
고졸 미만	0.23		0.24	
고졸	0.39		0.47	
전문대 이상	0.38		0.29	
여성의 교육연수	11.39	3.29	11.18	3.17
고졸 미만	0.32		0.31	
고졸	0.42		0.50	
전문대 이상	0.26		0.19	
노동시장 경력				
남편	18.14	9.99	17.80	9.47
여성	7.62	6.88	8.19	6.68
월평균 근로소득(만 원)				
남편	185.45	214.60	150.81	181.81
여성	46.82	88.61	47.39	76.25
남편의 직종				
관리자/전문가	0.12		0.07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6		0.14	
사무직	0.12		0.08	
서비스직	0.04		0.02	
판매직	0.07		0.07	
농어업	0.03		0.01	
기능원	0.21		0.26	
장치/조작 종사자	0.17		0.24	
단순노무, 기타	0.09		0.11	
남편의 산업				
농림어업	0.03		0.02	
광공업	0.25		0.35	
전기가수수도업	0.16		0.19	
유통서비스업	0.23		0.23	
생산자서비스업	0.13		0.10	
사회서비스업	0.13		0.04	
개인서비스업	0.07		0.07	
자녀수	1.08	0.95	1.17	0.96
가구수	3,752		228	

주: * 2000년 물가 기준.

표본가구 중에서 5.7%인 228가구가 표본기간 동안 남편의 실직을 경험하였다. 실직을 경험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인적특성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교육연수의 경우 실직을 경험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약간 낮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집단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전문대 이상 비율이 남편의 경우 0.38 대 0.29, 여성의 경우 0.26 대 0.19로 학력의 차이는 주로 고등교육 습득비율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경력연수는 남편의 경우 실직경험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짧고 (17.8년 대 18.1년) 여성의 경력연수는 길다(8.19년 대 7.62년).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도 실직경험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남편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여성의 근로소득은 많다. 두 그룹간 남편의 경력 및 근로소득의 차이는 실직의 영향을 반영하며, 비록 현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논의할 수는 없지만 실직경험가구 여성의 높은 경력수준과 노동소득은 남편의 실직 및 고용불안정에 의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남편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보면 실직경험가구의 경우 기능원, 장차조작 종사, 단순노무, 광공업의 비중이 높고 전문가, 사무직의 비중이 낮다. 이는 실직을 경험하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직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군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III. 남편 실직 전후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표 2>는 남편의 실직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실직 전후 취업률 및 주당 노동공급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본전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로는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편의 실직 3년 전에 비해 실직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당 노동공급시간의 경우는 오히려 실직이 발생한 연도에 감소하고 실직 후에는 전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는 학력별로 구분해 볼 때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실직 전의 취업률과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 실직 3년 전 취업률이 48.5%이고 고졸여성의 경우 38.1%,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은 36.8%로, 기혼여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경우 주당 28.3시간인 데 반해 고졸은 21.2시간,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16.5시간으로 취업률과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이

<표 2> 배우자 실직 전후 여성 취업률 및 주당 노동공급시간

시기 (년)	취업률				주당 노동공급시간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졸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졸 이상
-3	0.413	0.485	0.381	0.368	22.7	28.3	21.2	16.5
-2	0.417	0.587	0.359	0.304	22.3	32.5	19.2	14.3
-1	0.419	0.422	0.438	0.371	21.4	23.9	21.5	16.9
0	0.415	0.392	0.405	0.483	20.8	21.9	20.5	20.0
1	0.429	0.436	0.420	0.439	22.1	22.7	22.7	20.2
2	0.443	0.466	0.443	0.408	22.1	22.4	22.8	19.6
3	0.487	0.492	0.470	0.528	24.4	26.9	23.2	23.7
4+	0.441	0.383	0.434	0.580	21.2	18.7	20.7	27.6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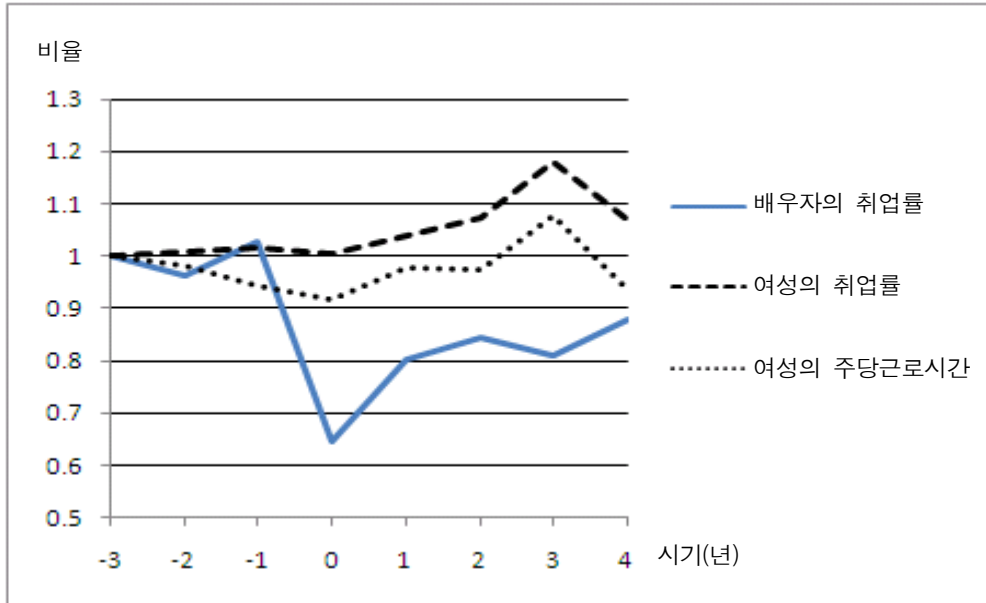
취업기회와 시장의 기대임금을 증가시켜서 경제활동을 늘린다는 일반적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능력을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소득효과에 의한 경제활동참여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고학력 여성이 결혼 및 출산 후 교육수준에 맞는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고학력 여성의 의중임금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직 후의 취업률 및 노동시간 변화 역시 학력수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졸 미만의 저학력 여성 집단의 경우 남편이 실직한 해에 취업률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 후로 점차 취업률을 회복하다가 4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실직을 경험한 해부터 노동공급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졸여성의 경우에는 실직 직전과 1년 후에 취업률 및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고학력 여성보다 그 증가 정도가 작다. 그 결과, 4년 이후의 취업률 및 노동공급은 고학력 집단이 가장 높고, 저학력 집단이 가장 낮아 실직 3년 전 패턴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1]은 남편의 실직 전후 부부의 취업률 및 여성의 주당 노동공급시간의 상대적 변화를 실직 3년 전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앞의 표에서 본 학력별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양상은 그림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예상대로 실직하는 해의 남성 취업률은 적어도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편의 취업률은 그 다음해부터 증가하지만 4년 후에도 예전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다. 특이한 점은 남편의 취업률이 급감하는 실직 발생연도의 여성 고용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해에 비해 감소한다는 것이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실직 직전 해부터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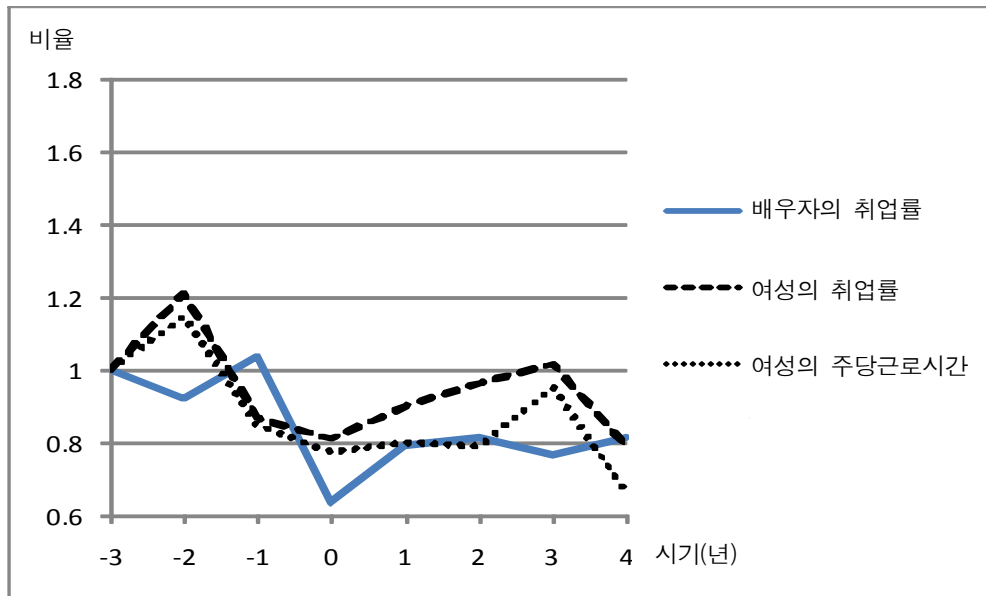
[그림 1] 남편의 실직 전후 상대적 노동공급의 변화

<전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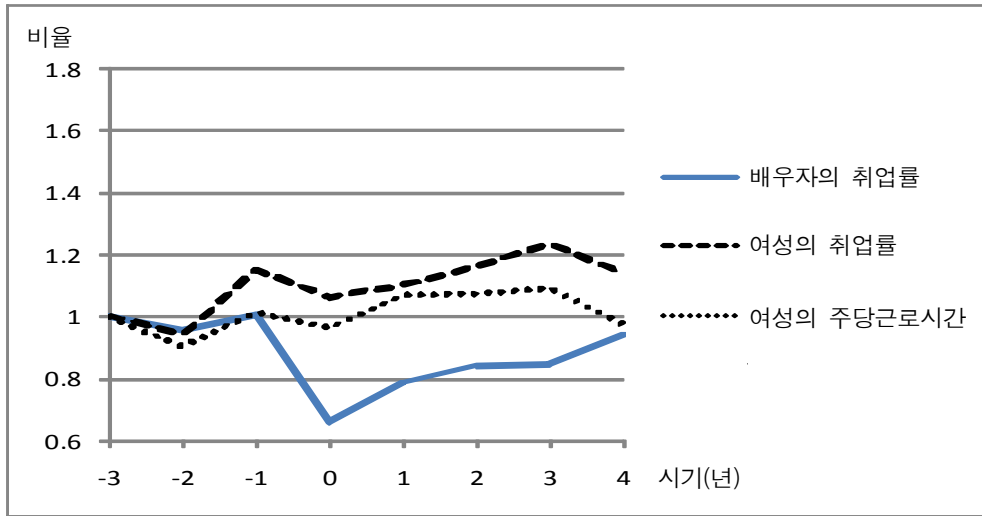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표본.

<고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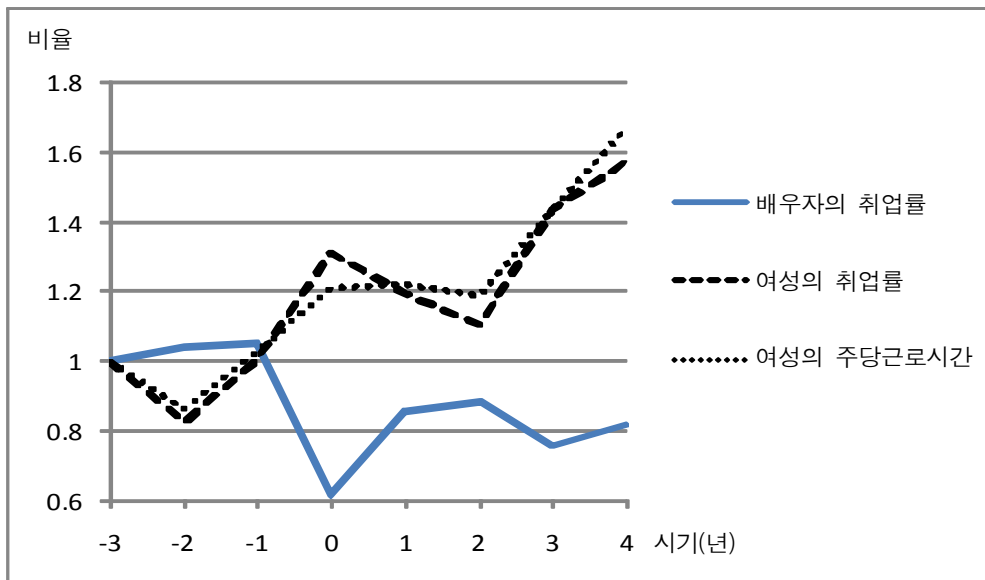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표본.

<고졸>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표본.

<전문대졸 이상>



자료: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표본.

이 감소하여 실직연도에 취업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고졸 학력 여성의 경우에도 비록 3년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인접 해에 비해 고용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은 남성이 실직하는 해에 취업률의 점프를 보이고 다시 약간 감소

하다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부부의 노동공급이 학력수준별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고학력 집단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취업상태와 여성의 취업상태가 단기적으로는 약하게나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실직 전후 근로소득의 변화

지금까지 남편 실직 전후의 여성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남편의 실직 전후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구의 부정적 소득충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남편의 소득감소를 얼마나 대체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3>은 남편의 실직 후 근로소득의 변화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남편과 여성의 월 근로소득 변화추정치는 선형고정효과모형(linear 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로그근로소득방정식을 추정한 후, 계수추정치와 각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근로소득방정식에는 실직 전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외에 경력 및 경력제곱, 자녀수, 연도더미를 포함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남편의 근로소득은 실직 후

<표 3> 남편의 실직 후 노동소득의 변화

(단위: 만 원, %)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상	
	남편	여성	남편	여성	남편	여성	남편	여성
0년	-163.9	6.7 [-4.1]	-95.9	-22.6 [23.6]	-177.4	18.1 [-10.2]	-237.5	114.6 [-48.2]
1년	-127.2	21.8 [-17.2]	-69.8	-15.1 [21.6]	-151.3	28.1 [-18.6]	-172.2	123.6 [-71.8]
2년	-105.2	12.9 [-12.3]	-53.1	-11.7 [22.0]	-129.2	16.4 [-12.7]	-156.7	71.0 [-45.3]
3년	-131.2	26.3 [-20.1]	-64.3	-5.7 [8.9]	-142.8	18.0 [-12.6]	-221.9	193.9 [-87.4]
4년	-117.0	14.1 [-12.1]	-69.9	-19.6 [28.1]	-114.0	21.5 [-18.9]	-212.6	150.6 [-70.8]
평균	-128.9	16.4 [-12.7]	-70.6	-14.9 [21.2]	-142.9	20.4 [-14.3]	-200.2	130.7 [-65.3]

주: 선형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근로소득방정식의 계수추정치와 월평균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추정된 금액임. 로그근로소득방정식에는 실직 전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외에 경력, 경력제곱, 자녀수, 연도더미를 포함. 괄호 안은 남편의 근로소득 변화 대비 여성의 근로소득 변화(%)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학력 집단에서 실직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감소가 가장 크다.

남편의 실직 후 여성의 근로소득 변화는 앞 절에서 살펴본 노동공급 변화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고졸 미만의 저학력 여성의 근로소득은 남편의 실직 후 동반 감소하며, 감소폭도 실직 당해 연도에 가장 크다. 이는 저학력으로 반영되는 저소득 가구의 여성노동소득이 가구소득의 충격을 완화시키기보다는 부정적 노동시장상황에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고학력 여성의 노동소득은 실직 후 남편소득의 감소를 상당 부분 대체함을 알 수 있다. <표 3>의 마지막 열을 살펴보면 고학력 여성 노동소득의 증가가 실직 후 남편소득 감소를 평균 65.3% 대체하여 남편 실직에 의한 가구소득의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하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배우자 실직으로 인한 여성노동공급의 변화를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충격에 대한 가족보험(family insurance)으로서 여성노동공급의 역할을 조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노동공급 패턴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실직 전후 여성노동공급의 변화는 학력별로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남편의 실직 전후에 노동공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은 남편의 실직 전후에 오히려 감소하며, 특히 실직 해의 노동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여성근로소득 변화 역시 노동공급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즉 고학력 여성의 근로소득 증가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의 근로소득은 남편의 근로소득과 함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남편의 실직 등 가구의 소득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하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와 달리, 경기 상황에 취약한 노동시장에 접해 있는 저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은 가구의 부정적 경제충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안정 수단으로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고소득 가구에서는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가족보험(family insurance)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실직 및 고용불안에 대해 가구내 여성의 노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함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를 고려한 조세·재정정책, 실업보험, 공적부조 등 사회정책에 대한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 김현숙성명재(2008),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12(1), pp.75 ~ 117.
- 박진희(2009),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9(2), pp.43 ~ 65.
- 윤윤규박성재(2008),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7), 「노동시장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
- 조윤영(2006),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Bowen, W. and A. Finegan(1965),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mployment," in A. M. Ross(ed.), *Employment Policy and Labor Marke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in, G.(199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An Economic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llen, J. and J. Gruber(2000), "Does Unemployment Insurance Crowd Out Spousal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 pp.546 ~ 572.
- Heckman, J. and T. MaCurdy(1980), "A Life 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pp.47 ~ 74.
- _____ (1982), "Corrigendum on a Life 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49, pp.659 ~ 660.
- Lundberg, S.(1985), "The Added Worker Effec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pp.11 ~ 37.
- Malony, T.(1991), "Employment Constraints and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 Reexamination of the Added Worker Effect," *Journal of Human Resources* 22, pp.51 ~ 61.
- Mincer, J.(1968),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H. G. Lewis(ed.), *Aspect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phens, M.(2002), "Worker Displacement and the Added Worker Effec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 pp.504 ~ 537.